한국어와 한국수화의 차이에 따른 수화통역 과정에서의 고려점

허 일*, 김경진**

Considerations for Korean-KSL Interpreting from according to the difference between Korean and KSL

Heo, Il*, Kim, Kyung-Ji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theories and practices about the interpreting processes between Korean language and Korean sign language(KSL), especially from according to the difference between Korean and KSL. Korean sign language is used by Korean deaf people and is natural language, whereas Signed Korean(SK) is used by many Korean hearing people and teachers of schools for the deaf, and is manually coded Korean for education of deaf students and the communication between the deaf and the hearing. Because of the difference of the kind, and word order, syntax, characteristics of verbs, grammar, subject omission possibility between Korean and KSL, sign language interpreters should consider many factors in interpreting process. In the last analysis, The study suggests the recommendations for Korean-KSL interpreters as follows; (1) Clear awareness and statement of the language in use(Korean language or Korean sign language), (2) Using non-manual markers(t expression, eye-gazing, body shift, role shift, constructed action, indexing, use of syntactic spaces, etc) to express subject and object argument instead of Korean word order, (3) position problem of Korean verb(usually final position of the sentence), (4) Setting up the meaning of the space in advance to indicate the person or object as though Korean uses a pronoun and demonstrative adjective to indicate the person or object, (5) using the space and NMS marker to express the structure of compound sentence, instead of Korean word order, (6) forceful expression of subject in KSL, otherwise Korean language is apt to omit the subject of the sentence in daily life.

Key Words : KSL, Korean sign language, Signed Korean, Interpreting, Transliteration

* 한국복지대학교 수화통역과 교수

** 한국복지대학교 수화통역과 교수

1. 서론

오늘날 점점 더 많은 청각장애 학생들이 대학 교육을 받게 됨에 따라, 수화 통역은 보조청취기기, 노트필기, 실시간 속기, 학습도우미 서비스 등과 함께 청각장애 학생들의 학습 및 정보 접근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중 하나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김경진, 허일, 2003).

그러나 대학에서의 청각장애 학생의 학습과 수화통역과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 결과(Quinsland & Long, 1989)는 숙련된 수화통역이 수화통역사나 교수 본인에 의해 제공됐을 때, 다른 조건(수화통역 서비스가 없거나 비숙련 수화통역사)에 비해 더 나은 학업 성취를 청각장애 학생이 보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고도의 전문 지식과 능력을 갖춘 수화통역사가 수업에 참여한 경우, 수업 후 회상 양이 더 많았고, 비숙련 수화통역사가 배치된 경우보다 과학 과목의 학업 성취가 두 배 이상 높았다는 연구 결과는 수화통역 서비스의 제공 여부보다는 어떤 수화통역을 누가 어떤 경험과 준비를 거쳐 제공하느냐에 따라 청각장애 학생의 학습이 달라질 수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연구들이 수화통역 모델(Seleskovitch, 1992; Frishberg, 1990; Humphrey & Alcorn, 1994; Cokely, 1992; Colonomos, 1992; McIntire & Sanderson, 1995), 수화통역사와 농학생의 의사소통 방법의 일치(Seal, 1998; Winston, 1995), 수화통역사의 강의 내용에 대한 이해도 및 익숙함(DeGroot, 1997), 수화통역사의 교육 배경, 전공 지식에 대한 친숙함, 강의 자료의 복잡성 및 언어 특징에 따른 수화통역 스타일의 변화(Napier, 2002)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요인들이 적절한 수화 선택, 수화통역 스타일, 의사소통 단절을 위해 사용하는 회복 전략, 통역할 메시지에 대한 정확한 해석, 수화통역의 정확성 및 효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화 교육의 대중화와 한국수화(Korean Sign Language)에 관한 언어학적 연구 및 출판물의 부족, 짧은 수화 교육 기간 등으로 인한 수화 단어 중심의 수화 교육과 수화 단어의 한국어식 사용에 기반한 한국어-수화 통역의 우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수화통역은 간단한 일이고, 짧은 시간 내에 숙달 가능한 작업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기도 하다. 초보자나 문외한들은 수화통역사가 하는 일이란, 그리고 수화로 농인과 대화하는 일이란 한국어 화자가 말한 한국어 단어를 수화 단어로 바꾸고, 수화 단어를 한국어 단어로 바꾸면 되는 간단한 일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다. 자신이 아는 한국어 단어를 수화로 어떻게 하는가를 배우기만 하면, 무언가를 수화로 표현하는 것과 수화를 보고 이해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대학에서의 수화통역뿐만 아니라 농인을 위한 수화통역이 이루지고 있는 대부분의 장면에서 팽배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수화통역은 한국어 단어를 수화 단어로 바꾸는 과정이라고 보는, 이러한 수화통역 모델을 Stewart와 Schein, Cartwright(1998)는 인지모델, 상호작용모델, 해석모델, 사회언어학적 모델, 해석 과정 모델, 이중언어-이중문화 모델 등과 함께 수화통역 모델의 한 종류인 송수신 모델로서 분류하고, 이 모델의 특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송수신 모델에서는 수화통역사는 기계적으로 메시지를 수신하여 송신하는 역할을 하며, 마치 의사소통 흐름에 있어서 상수도관과 같은 파이프나 전화선, 보청기와 같은 존재이며, 수화통역 과정에 과거 경험이나 생각, 느낌이 개입하는 것은 의사소통 잡음 변인에 해당된다고 본다. 이 모델은 미국의 경우 1970년대 풍미했던 모델이긴 하지만, 한국의 경우 현재 맹위를 떨치고 있는 모델이어서,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수화통역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델이다. 이 모델 하에서 교육을 받은 수화통역사들은, 자신이 들은 말의 의미를 이해할 필요도 없고,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다고 교육받아 왔다. 수화통역사가 할 일은 단지 손을 움직이는 것, 즉 그것을 수화로 표현하면 그만인 것이다.

이와 같이 송수신 모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수화통역사라는 통로를 통해 정보의 수신과 송신이 동시에 일어나서 정보가 전달된다는 점이다. 이 점이 다른 수화통역 모델들이 수화통역 과정에서 수화통역사가 원 메시지를 수신하여 이를 변형하여 대상 언어로 바꾸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지연(delay) 현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과 크게 다른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와 한국수화의 언어학적 차이에 따라 수화통역사가 수화통역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을 검토하고, 한국어-수화 통역과 수화통역사 양성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본론

2.1 한국수화와 한국어의 구분

손을 움직여 농인과 대화하거나 농인을 위하여 통역할 때 사용되는 수화(手話)는 언어학적으로는 크게 KSL(Korean Sign Language)과 SK(Signed Korean)로 나눌 수 있다(원성옥, 2013). KSL은 한국수화(한국수어 또는 한국수화언어) 또는 자연 수화, 농식 수화로 번역해서 사용하고, SK(Signed Korean)는 한국어대응수화, 한글식수화, 아식수화, 문법성수화, 문장식 수화, 방법론적 수화, 수지 한국어, 손 한국어라는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SK를 배우고 사용하는 대부분의 수화 사용자들(농인, 청인 모두) 사이에서 자신들은 한국수화(KSL)를 배웠거나 어쨋든 Sign Language를 배우고 사용한다는 착각이 만연하고 있다.

SK 사용자들은 한국어 어순과 문법에 맞추어 자신이 배우거나 알고 있는 몇 백 개에서 1-2 천개의 단어를 한국어 단어마다 수화 단어로 대체하여 수화 문장을 완성한다. 대개의 경우 SK 사용자들은 수화 단어를 한국어 단어처럼 사용한다.

또한 SK 사용자들은 수화 배우기와 수화통역 배우기가 동일한 과정이며 아주 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수화 단어 1500-2000개만 배우면 수화통역사 자격증 따는 것도, 농인과 대화하고, 농인을 위해 통역하는 것도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믿고 있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SK 사용자들 때문에 수화 무용론이나, 수화 배운 농인들은 바보가 되고 취업도 어렵고 사회 생활이 어렵다는 신념이 서서히 자리 잡아 가고 있다. 한국어에 비해 수화 단어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수화로는 한국어 문장을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SK 사용자들의 경험이 수화의 한계 및 무용론이 퍼지는 근거가 되고 있다. SK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수화가 이해할 수 없고, 불완전한 문장에 심지어 한국수화 입장에서는 비문에 가깝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의 SEE I, SEE II, LOVE와 같은 SE(Signed English, 영어식 수화)가 Sign Language가 아니라 영어(English)이듯이(원성옥, 2013), SK(Signed Korean)는 언어학적으로는 한국어(Korean language)이다. SK는 수화나 수어가 들어간 명칭으로 불리면서, 한국 농인의 언어인 한국수화(Korean Sign Language)와 같은 Sign Language*라는 오해를 받고 있다. 한국수화(KSL) 연구자들 사이에서 '한국어대응수화'나 '문법성수화', '아식수화', '한글식수화'라는 표현보다는 '수지 한국어'나 '손 한국어', '수지 구어'를 사용하자는 제안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가 이러한 오해 때문이다(김칠관 등, 2011). 한국어의 음성 버전, 문자 버전(한글), 점자 버전(한글점자) 등이 있듯이 한국어의 손 버전(Signed Korean이라는 용어는 한국어인데 손을 표현양식으로 한 한국어라는 뜻)이 존재하고 이를 배우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한국 농인들의 언어인 한국수화(KSL)가 '수지 한국어(Signed Korean)'와의 혼돈과 한국어 사용자들의 학습과 사용 용이성 때문에 그 존재 가치와 유용성이 부정되거나 제약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수지 한국어(SK)'를 가르치고 배우고 사용하는 사람들은 한국어를 가르치고 배우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 그대로 표현하면 된다. 한국어식 수화, 한국어대응수화, 아식수화, 문장식수화와 같이 '수화'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수화(Sign Language)를 가르치고 있으며, 심지어 한국수화(KSL)를 가르치고 있다고 표현해서는 안될 것이다.

한국수화(Korean Sign Language)와 수지 한국어(Signed Korean)가 단어의 차이일 뿐이고(고급반에서 배우는 농식 수화 단어나 관용 수화 단어, 숙어 등만 더 알면 한국수화 마스터 가능), 수화 단어의 의미와 형식, 실제 사용을 한국어 단어처럼 사용해도 무방하며, 수화 문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한국어 문법과 동일하고 한국어 어순에 따라 수화 단어를 나열하면 그게 수화고 한국수화라는 생각은 한국수화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한국어(수지 한국어 포함)와 한국수화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다.

'수지 한국어(Signed Korean)'는 특정목적을 위해 필요한 의사소통 방법이다. 옳고 그름이나 언어가 아니다, 수화를 못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수화인가/한국어인가하는 언어의 차이 문제일 뿐이다.

'수지 한국어(Signed Korean)'가 한국수화라는 이름으로 출판되고, 연구물로 나와서는 안되며, 미국에 많은 영어식 수화(Sign English)에 관한 연구물과 출판물이 SE라는 이름으로 출판되듯이, SK라는 이름으로 연구되고, 출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영어를 SE로 바꾸는 수화통역사에게는 음역(Transliteration) 자격증을 부여하고, 영어를 ASL(미국수화)로 바꾸는 수화통역사에게는 통역

* Sign Language를 한국어로 수화(手話) 또는 수어(手語), 수화언어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는 한국 농인들의 언어가 손으로 대화하는 언어가 아니라 손도 사용하는 언어라는 측면에서 부적절하다. Hand Language 혹은 Manual Method를 지칭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농인들의 언어를 수(手)를 포함한 단어로 지칭하는 것은 농인의 언어를 과소평가한 결과이다. 제1저자는 Sign Language를 '농인의 언어'로 번역하는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 중국 등에서는 통상적으로 농인의 언어인 Sign Language를 '수화'로 지칭해 사용해 왔고, 대중적으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Interpretatin)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농인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SE 또는 ASL, 영어인가 미국수화인가)에 따라 음역 또는 통역 자격증 소지 수화통역사를 선택하여 통역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Frishberg, 1990).

한국도 앞으로는 수화통역사 시험(한국농아인협회 시행)에서도 '수지 한국어(Signed Korean)'와 한국수화 자격인정시험을 구분하여 통역자격증 인정시험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국농아인협회 주관 청각장애인 통역사 실기시험에서는 이미 문장식 수화(수지 한국어)와 농식 수화(한국수화)를 시험과목(문장수화통역, 농수화통역)으로 구분하여 따로 검증하고 있다(http://www.deafkorea.com/ver/_deaf/test2.html#map5). 청인 대상 수화통역사 자격증도 미국이나 청각장애인 통역사 시험처럼 '수지 한국어' 통역사(한국어-SK) 자격증과 '한국수화' 통역사(한국어-KSL) 자격증으로 구분하여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기에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2.2 한국어와 한국수화의 어순 활용 차이

한국어에서는 조사와 어순 등의 문법 장치에 의해 주어와 목적어, 동사간의 관계가 표현된다(-은/-는/-이/-가 등의 조사가 있으면, 주어). 한국어에서는 조사뿐만 아니라 어순에 의해서도 주어와 목적어가 결정되는데, '나 너 좋다' 라고 말해도 대부분의 한국어 화자들은 '나'를 주어로, '너'를 목적어로 이해한다. 한국어에서 주어-목적어-동사(SOV) 어순을 기본 어순(기본 문형)으로 보는 이유이기도 하다. 수지 한국어(SK)의 어순은 대체로 한국어와 동일한 어순을 따른다. 심지어 한국어 문장 어순을 그대로 따르다 보니, '너를 내가 사랑해'라는 한국어 문장을 [너 나 사랑하다]와 같이 수화 단어가 조합된 수화 문장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다(수화노래뿐만 아니라 많은 청인들의 수화와 일부 한국어에 능하신 농인들에게 나타나는 수화 문장). 즉, 수지 한국어(한국어대응수화) 역시 기본 어순은 주어-목적어-동사 어순을 기본 어순으로 사용한다.

이에 비해 한국수화는 다른 나라 수화와 비슷하게 시각언어이고 공간을 활용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free order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Tervoort, 1968; Friedman, 1976; Neidle et al., 2000; Bouchard & Dubuission, 1995). 한국에서는 free order라는 용어가 '어순이 자유롭다', '어순에 제약이 없다' 라고 소개되어 있어서 한국수화에서는 단어를 자유롭게 나열해도 되고, 어순이 자유로우므로 한국어 어순 그대로 해도 된다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 듯하다. 하지만, 한국수화가 free order라는 특성을 갖는다는 것은 농인의 언어인 수화는 어순이라는 문법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문법장치(공간 활용, 일치동사, 몸의 방향과 눈의 응시와 같은 비수지정보[NMS, Non Manual Signal])를 통해 주어와 목적어를 특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어순은 중요하지 않으며, 한국수화 문장에서 어순이 아닌 다른 문법요소에 의해 주어와 목적어 특정과 같은 문법정보가 표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수화에서 어순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남자는 여자를 좋아한다'라는 한국어 문장의 의미를 한국수화문장(KSL)에서는 [남자 여자 좋다] [여자 남자 좋다] [좋다 남자 여자] [좋다 여자 남자] 등의 어순으로 모두 표현가능하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2) (3) 참조).

(1) 한국어: 나는 너를 좋아한다.

(2) 남자a 여자b a가리키기b 좋다 (t*, 시선→b**)
번역: 남자는 여자를 좋아한다.

(3) 여자a 남자b b가리키기a 좋다 (t, 시선→a)
번역: 남자는 여자를 좋아한다.

한국수화에서는 어순 이외에 다양한 문법 장치를 사용한다(원성옥, 2013; 원성옥 등, 2013; 남기현 등, 2011). 다양한 수화 자료 수집과 코퍼스 구축 등을 통해 체계적인 검증이 필요하지만, 다른 나라 수화들처럼 공간의 통사론적 활용, 가리키기(Indexing), 눈 응시(Eye Gazing), 몸의 방향 변경(Body Shift), 역할 변경(Role Shift), 구성된 행위(Constructed Action), 화제화(topicalization) 등을 사용한 문장들을 농인들이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국어와 한국수화의 이러한 차이(주어, 목적어를 표시하기 위해 어순을 활용하는가 여부)가 시사하는

---

* t는 topic expression, 한국수화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 수화에서 화제화나 주어 표현을 위해 사용되는 NMS로, 눈썹이 올라가고, 눈이 커지는 등의 NMS가 수화 단어와 함께 표현된다. 수화 단어와 함께 이러한 눈썹과 눈 정보가 동시에 제시된다는 점을 단어 위에 밑줄을 그어 표현한다.

** [좋다]라는 수화 단어를 표현하면서 동시에 앞부분에 [여자] 수화 단어가 표현된 공간(b)을 눈으로 응시하면서 수화 문장이 표현되었다는 것을 밑줄을 그어 표시하였다.

바는 한국수화를 볼 때 명사에 해당하는 두 세 개의 단어를 보았을 때(명사 명사 동사, NNV) 섣불리 주어와 목적어로 특정지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나 너] 나 [남자 여자]와 같은 명사 혹은 대명사 나열을 보자마다 '나는 너를'이라고 해석하면서 수화를 보게 되면 낭패를 볼 가능성이 높다. 뒤에 오는 동사와 앞에 제시한 다양한 NMS(손 이외에 다른 부분에 담긴 정보, Non Manual Signal)와 공간 활용을 통해 한국수화 사용 농인들은 나를 주어로도 목적어로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화의 free order 특성, 즉 어순을 통해 주어와 목적어를 특정 짓지 않고, 다른 문법 장치를 통해 주어와 목적어를 특정 가능한 한국수화의 특성은 조사와 어순이 너무나 중요한 한국어 사용자들의 수화 학습과 통역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어순이라는 문법장치를 신경 쓰지 않고 수화를 하는 농인(한국수화 사용자)과 주어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한국어나 수지 한국어(SK) 사용자가 대화하는 상황이란 의사소통 단절 및 오해의 축적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다(주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해하는 상황에서 온전한 의사소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2.3 한국어 동사 위치에 따른 한국수화 동사의 종류와 특성 반영의 어려움

한국수화에서는 동사가 중요하다는 말을 연구자와 통역사들 사이에서 많이 한다. 동사에 많은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수화 동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인칭과 성, 수에 따라 변하지 않는 일반동사, 혹은 비굴절동사(plain verb, 그러나 단순동사도 연속상, 완료상, 반복상 등 Aspect에 따른 변화는 일어날 수 있다)와 인칭과 성, 수, 상에 따라 변하는 일치 동사(agreement verb), 인칭, 성, 수, 상에 따른 변화는 없으나 행위 관련 장소나 움직임에 따라 변화하는 공간동사(spatial verb), 세 가지가 그것들이다(Fischer & Gough, 1978; 남기현 등, 2010).

수화 동사의 종류에 따라 주어와 목적어를 표시하는 방법이나 주어가 1인칭인지, 2인칭인지, 단수인지, 복수인지, 어디서 어떤 양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를 표시하는 방법이 다르다. 수화 동사를 배울 때, 그 의미와 함께 동사의 종류, 즉 단순동사인지, 일치동사인지, 공간동사인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해당 수화 동사가 일치동사라면 앞에 어떤 어순으로 명사나 대명사 등이 나열되어 있더라도(물론 단어마다 특정 공간에 할당되어 있어야 함) 시작점과 끝점, 혹은 방향에 의해 주어와 목적어를 결정할 수 있다.

(4) 남자a 여자b a주다b
번역: 남자가 여자에게 주다
(5) 남자a 여자b b주다a
번역: 여자가 남자에게 주다

이에 비해 단순동사(plain verb)는 시선 응시나 특정 공간 가리키기(indexing), 몸의 방향 바꾸기(body shift) 등과 같은 NMS 함께 동사 표현이 나타나면서 주어와 목적어를 나타낸다(NMS가 수반되지 않는 수화 문장에서는 SOV 어순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원성옥 등, 2013 참조)

t 시선→b
(6) 남자a 여자b a가리키기b 좋다
번역: 남자가 여자를 좋아한다.

t 시선→a
(7) 남자a 여자b b가리키기a 좋다
번역: 여자가 남자를 좋아한다.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나 움직임을 공간을 활용해서 나타내는 공간동사의 경우 인칭이나 수의 변화에 따른 변화는 없다는 점에서 단순동사(plain verb)와 유사하지만 행위 장소 관련 정보나 어떤 명사 종류가 어떻게(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행위를 하였다는 정보가 수화 동사에 함께 표현된다는 점이 다르다.

한국어와 달라 한국수화는 굉장히 친절하다. 특히 수화 동사에 주어와 목적어가 무엇인지, 단수인지 복수인지 어디서 어떻게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확실하게 표현된다. 한국어 사용자에겐 익숙하지 않은 특성이다. 한국어에서는 주어의 인칭 및 단복수 변화에 따라 동사('좋다' , '주다')에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한국수화는 불어나 영어에서 인칭의 변화에 따라 동사의 어미가 변화하는 것처럼 인칭이나 성, 수의 변화에 따라 동사가 변화하는 언어다.

수화 동사의 종류 유형을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도둑이 경찰에 잡혔다'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라는 한국어 문장을 이와 동일한 의미의 수화문장으로 바꿀 때, 한국어 동사 '잡다'에 해당하는 수화 동사 [잡다]가 일치동사(시작점과 끝점 혹은 손의 방향에 의해 주어와 목적어를 표시]이기 때문에 수화 문장에서는 [경찰 도둑 잡다] 순으로 하든, [도둑 경찰 잡다] 순으로 하든 관계 없이, 즉 어순이 중요하지 않

고 [잡다] 수화 동사의 손의 방향에 의해 주어와 목적어를 표시한다.

(8) 경찰a 도둑b a잡다b
번역: 경찰이 도둑을 잡다
(9) 도둑a 경찰b b잡다a
번역: 경찰이 도둑을 잡다

이와 같이 한국어 동사에 해당하는 수화 동사가 무엇인지 알아야할 뿐만 아니라 동사 유형을 알아야 해당 동사의 주어와 목적어가 어느 것인지 표현할 수 있다. 수화 동사의 유형 혹은 종류가 단순동사인지 일치동사인지 공간동사인지 알아야 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일치동사는 공간을 인칭 혹은 주어와 목적어를 표현하는데 사용하지만, 공간동사에서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물리적 공간을 나타내는데 사용한다. 또한 단순동사나 공간동사는 어떤 명사나 대명사가 주어이고 목적어인지 나타내기 위해 어순이 아니라 화제화(대표적인 NMS, 눈썹이 올라가고 눈에 힘을 주고 머리나 턱에 움직임), 공간의 통사론적 사용과 공간 가리키기(Indexing), 눈의 응시(시선변화), 몸의 방향 바꾸기, 역할 변경, 구성된 행위(Constructed action)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동사의 종류에 따라 주어와 목적어를 특정 짓는 방식이 다를 수 있고, 주어의 인칭, 성, 수, 동사의 상(Aspect)의 변화에 따라 수화 동사의 형태가 변하는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수화 동사 단어의 의미뿐만 아니라 동사의 유형도 반드시 알아야 한다.

한국어 문장의 동사에 해당하는 수화 동사가 단순동사(Plain verb)라면, 어순이나 손의 위치를 보아서는 주어와 목적어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좋다]라는 수화 동사는 단순동사인데, 이 동사는 주어의 인칭, 성, 수에 따라 형태 변화가 없는 동사이다. 또한 주어와 목적어를 [좋다]라는 동사의 방향이나 손 모양, 위치 등에 의해 나타낼 수 없는 동사이다. 따라서 이 경우 [좋다]라는 동사를 하면서 눈이 어디를 바라보는지, 수화 동사를 하기 전이나 동시에 특정 공간을 가리키기(Indexing)가 나타났는지, 몸의 방향을 특정 방향으로 틀면서 수화 동사를 했는지, 수화 화자가 자신을 상대방이나 제3자, 할아버지 할머니 등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서 수화를 하는지(Role Shift) 등을 볼 수 있어야 주어가 누구인지, 목적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 [개 고양이 좋다]라는 수화 문장이 반드시 '개가 고양이를 좋아한다'를 의미하지 않고 [좋다]라는 수화를 하면서 동시에 표현된 NMS에 따라 '고양이는 개를 좋아한다'라는 의미를 표현한 것일 수도 있다. 즉, 한국수화에서는 어순이 중요하지 않고, 어순으로부터 자유롭고, 어순에 매이지 않으며, 어순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 어순이나 조사를 활용해 주어와 목적어를 나타내지 않고 다른 문법 장치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국어 문장 속의 동사에 대응하는 수화 동사가 단순동사(plain verb)인지, 일치동사(agreement verb)인지, 공간동사(spatial verb)인지 알아야 정확하게 주어가 무엇인지, 목적어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다.

수지 한국어(Signed Korean)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수지 한국어(한글식 수화, 건청인식 수화, 한국어대응수화)가 언어학적으로는 한국어이기 때문에, 한국어 단어마다 수화 단어를 대응시키고, 한국어 어순에 의존하고 수화 동사 단어를 하면서 한국수화에서처럼 NMS(눈의 응시, 공간 가리키기, 몸의 방향 틀기 등)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해당 동사의 주어와 목적어가 무엇인지 알기가 어렵다. 한국어의 기본 문형인 주어-목적어-동사 어순에 맞는 한국어 문장을 표현한 수지 한국어라면 문제가 없지만, 이 어순에 어긋나는 경우 주어와 목적어를 알아보지 못해 수화 문장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다음은 수지 한국어(SK)로 한국어 문장을 표현한 문장이다(원성옥 등, 2013).

(10) [어머니 항상 피곤하다 아버지 걱정하다]

이와 같이 수화 단어를 조합하여 표현된 문장을 실제로 수화로 본다면 '어머니는 항상 피곤해 하신다.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를) 정말 걱정하신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 수지 한국어(SK) 문장은 다음과 같은 한국어 문장을 표현한 것이다.

(11) 어머니는 늘 피곤해하시는 아버지가 걱정이다

수지 한국어에서는 한국수화처럼 주어와 목적어를 공간 활용이나 NMS와 같은 문법장치를 통해 명시하지 않고, 한국어 어순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다음 문장의 경우도 유사한 경우다.

(12) [나 춥다 물 싫다] 혹은 [나 차다 물 싫다]

이 문장에서 한국수화 사용자에게 [춥다]의 주어, [싫다]의 주어는 '나'로 보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위 문장은 한국수화 사용자에겐 '나는 춥다. 나는 물이 싫다'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 문장은 다음 한국어 문장을 표현한 문장이다.

(13) 나는 찬물이 싫다

[차다] 혹은 [춥다], [싫다]의 주어가 무엇인지 수지 한국어에서는 단서가 어순, 앞에 있는 명사나 대명사라는 단서밖에 없지만, 한국수화에서는 어순에 의존하지 않고 앞에 제시된 명사나 대명사 중에 주어가 무엇인지 시선이나 가리키기 등의 NMS를 통해 명확하게 표현한다([차다] [싫다] 모두 단순동사).

	t	시선→a	t	시선→a
(14)	물a	차다	나	싫다

번역: 나는 찬물이 싫다.
물이 차다. 나는 그 찬물이 싫다.

명사와 동사 등 품사 변화에 따른 수화 단어의 형태 변화(형태론)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고, 보다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2013년부터 국립국어원과 한국농아인협회에서 한국수어 코퍼스 구축 사업을 시작할 예정임). 한국수화 명사와 동사의 형태 구분에 대해서는 미국 수화에서처럼 명사의 경우 반복이 나타나고, 동사의 경우 그렇지 않다는 의견, 형태 차이가 없다는 지적, 손에 담긴 정보로는 구분이 안 되고 눈응시, 상에 따른 변화, NMS를 봐야 명사인지 동사인지 알 수 있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앉는 의자'라는 한국어 문장에서 동사는 '앉다' 인데 이에 해당하는 수화 동사는 공간동사(spatial verb)이고 [앉다]라는 수화를 어디에서 하느냐가 한국어 조사 -에에 해당하는 역할을 하는 장소 형태소가 포함된 동사이다. 어디에 앉는지에 해당하는 장소나 대상(여기서는 의자)이 앞에 공간으로 설정되고, 그 공간에서 [앉다]라는 수화 동사가 표현된다. 수화 문장들이나 담화 속에서 [앉다 의자] 어순의 수화 나열보다 [의자 앉다] 어순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여기에서 누가 앉는지에 따라 [앉다]라는 수화 동사를 하면서 주어가 눈 응시(Eye-gazing)나 구성된 행위(Constructed Action), 가리키기(Indexing), 역할 변경(Role Shift) 등을 통해 표현되어야 하고, 의자의 경우도 어떤 의자냐에 따라 상세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유로 '앉는 의자'라는 한국어 예만 보여주거나 제시한 상황에서의 수화문장은 난해하거나 불가사의한 문장 혹은 수지 한국어 문장과 비슷한 문장이 나올 수 있으나, 수화 대화나 이야기 속에서는 이해에 전혀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수화 사용 농인들은 '나는 앉는 의자를 만들었다'라는 한국어 문장을 [나 앉다 의자 만들다]라는 수화 단어의 조합으로 문장을 표현하지는 않는다.

'앉는 의자' 같은 의미를 수화로 표현할 때 [앉다]라는 수화 동사가 공간동사인 점에서도 표현 방식이 달라질 수 있지만, 어떤 의자인지 상술한 후, 의자 같은 가구 범주를 나타내는 손모양(분류사)를 하고 [앉다] 라는 동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원성옥, 2013). 수화가 free order이긴 하지만 제한적으로 free order라고도 보는 이유 중 하나인데 등장인물이나 사물을 미리 세팅하고(이 때도 주어가 목적어보다 먼저 와야 한다든지 하는 압력은 없다) 각 사물이나 인물의 범주를 나타내는 분류사(특정 손 모양)를 동사의 일부나 비우세손으로 표현하면서 동사를 표현하는 방식이 한국수화에서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4 한국어 대명사 및 지시사 통역의 어려움

한국어 문장에는 수 많은 '그, 그녀, 이것, 저것 , 그것' 이 존재한다. '그 남자' '이 책' '우리 학교' '너희 팀' 등. 앞 뒤 문맥에 따라 각 대명사와 지시사가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지칭하는지 이해한다. 수지 한국어에서도 각종 대명사나 지시사가 나올 때 중립 공간 혹은 좌우 공간을 가리키며 수화를 한다.

(15) [그 책]

수지 한국어에서는 '너희, 우리' 와 같은 대명사도 [너희]는 '손등을 위로해서 손을 시계방향으로 돌리고' [우리]는 '손바닥을 아래로 해서 시계방향으로 돌리는' 수화 단어 간의 차이로 표현한다. 좌우 몸 가까운 곳과 먼곳을 검지 손가락으로 지적하며 [이 그 저]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몸 앞쪽 중립공간을 지적하는 것으로 대신하곤 한다. 수지 한국어답게, 한국어 어순을 그대로 따라가며 수화 단어를 나열한다.

그러나 공간을 활용하는 시각언어인 한국수화는 공간을 지적하여 대명사로 사용하거나, 일치동사나 공간동사에서 공간이 주어나 목적어, 장소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먼저 특정 공간이 특정 사물이나 사람을 나타내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수화에서는 한국어 '그 책' 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16) 책a 가리키기a
번역: 그 책

즉, [그 책]이라는 한국 수화 표현은 없고, [책a INDEXa]라는 수화 표현이 나타난다(특정공간 a에서

[책] 수화를 하고 그 공간 a를 지적해야 한국어 '그 책' 에 해당하는 의미를 갖는다).

(17) 선생님a 학생b 책 a주다b
번역: 선생님이 학생에게 책을 주다

위의 예에서 한국어 문장 '선생님이 학생에게 책을 주다' 에서 '주다' 에 해당하는 수화 동사 [주다]는 일치동사이므로 주어와 목적어에 해당하는 인물들이 특정 공간 a b (보통 좌우)에서 설정되고, [주다]라는 수화를 할 때는 a주다b 혹은 b주다a 수화가 표현되어야 한다. [선생님] [학생] 수화를 모두 중립공간(∅)에서 하고 [주다] 수화를 공간을 활용해서 하더라도 이상한 수화 문장이 되거나, 주어가 바뀌게 된다. [우리]나 [너희] 수화도 우리가 의미하는 대상을 정확히 사전에 공간에 설정하고, 손을 지칭하는 대상에 따라 돌리지 않으면, 오해가 발생하게 된다. 한국어 문장 '그 남자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었다'가 한국수화 문장으로는 아주 표현하기 어려운 이유가 이 때문이다.

(18) 그 남자 그것 우리 주다

위와 같이 한국어 문장을 수지 한국어 문장으로 표현하더라도, 표현한 것이 없거나 이해하기 어렵다.

(19) 선생님a 책b 학생들c 가리키기b a주다c

위와 같은 한국수화 문장이 더 이해하기 쉬운 이유는 특정공간 a b c가 누구를 혹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시되어 있고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어 문장을 단어마다 그 어순 그대로 수화를 한다면 한국어 문장의 수많은 '이 그 저' 가 누구를 혹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모든 수화를 몸 앞쪽 중립 공간(∅)에서 계속 수화한다면(공간 활용하지 않고), 일치동사나 공간동사의 수화하는 위치가 어떤 사람을 나타내고, 어떤 장소를 나타내는지 알 수 없거나 뒤바꾸게 된다. 단순동사의 경우도 가리키기(Indexing)나 눈의 응시(Eyegazing)를 통해 주어가 무엇인지, 목적어가 무엇인지 표현할 수 없다. 한국수화로는 이해할 수 없는 수화 문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2.5 한국어 복문 통역의 어려움: 주어와 동사가 한 문장에 2개 이상인 경우

미국수화(ASL)의 경우, 두 개의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결합시켜 표현할 때, 1) 관계사절을 나타내는 NMS(일명 R 표현, 화제화 관련 t 표정보다 하나의 요소(머리의 기울임)가 더 추가 됨), 2) 가리키기(Indexing) 3) 역할 변경 혹은 구성된 행위(Role shift or Constructed Action) 등의 문법 장치를 활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Liddell, 1980; Neidle et al., 2000). 한국수화 또한 가리키기와 역할 변경 등의 문법장치를 통해 복문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미국수화의 R 표현 혹은 영어의 관계대명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NMS가 존재하는지는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영어와 같이 관계대명사를 통해 복문을 만드는지도 연구가 필요하다.

(20) 한국어: 어머니는 늘 피곤해하시는 아버지가 걱정이다.
(21) 수지 한국어(SK):
[어머니 항상 피곤하다 아버지 걱정하다]

수지 한국어에서는 한국어 단어마다 수화 단어를 대체하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수화를 하게 된다.

하지만 위 수화 문장(21)은 한국수화로는 '어머니는 항상 피곤해시고,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가) 걱정이다' 라는 뜻으로 이해될 가능성이 높다. 원 한국어 문장과는 전혀 다른 뜻이 되고, 주어가 바뀌는 사태가 발생한다.

(20)번 한국어 문장을 한국수화로 표현한 예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2)
시선→a 시선→b
[아버지a 어머니b 항상 피곤하다 걱정하다]

(23)
시선→b 시선→a
[어머니a 아버지b 항상 피곤하다 걱정하다]

(24)
시선→a 시선→b
[아버지a 어머니b 피곤하다 항상 걱정하다]

(25) [아버지a 항상 피곤하다 모습 어머니b b보다a 걱정하다]

(26) [아버지 항상 피곤하다 때문에 어머니 걱정하다]

(27)

시선→a

[아버지a 피곤하다 항상 어머니b b보다a
시선→b
걱정이다]

(28) [어머니 걱정하다 what(or why) 아버지 피곤하다 항상]

(29)

Role shift

[어머니 걱정이다 아버지 피곤하다 항상]

(30)

Role shift1 Role shift2

[아버지 피곤하다 항상 어머니 걱정이다]

수화 문장 (28)은 수화 화자가 자신에게 청자의 주의를 집중시키고자 하거나, 화법의 한 종류로 사용되곤 한다. 수화 문장 (29)처럼 주절의 목적어가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종속절에 나타나는 경우, Internal Head 방식을 사용하는 언어라고 한다. 이에 비해 한국어나 영어는 주절과 종속절의 공통 요소가 주절에만 나타난다. 이런 경우를 External Head 방식을 사용하는 언어라고 한다(Liddell, 1980, pp.127-130).

(31) 한국어: 나는 아버지가 주신 책을 잃어버렸다.

(32) 영어: I lost the book that my father give me.

가리키기(Indexing) 등을 사용해서 두 개의 문장을 하나의 문장(복문)으로 표현한 한국수화 문장의 예를 더 들면 다음과 같다.

(33) 한국어: 나는 고양이를 쫓아가는 저 개가 좋다.

(34) 수지 한국어:
[나 고양이 쫓아가다 저 개 좋다]

(35) 한국수화:

t

[고양이a 개b b쫓아가다a 가리키기b 나 좋다]

(36) 한국수화:

t 시선→a

[개a 고양이b a쫓아가다b 가리키기a 나 좋다]

2.6 한국어 주어 생략에 따른 통역의 어려움

한국어는 주어 생략이 흔하다는 점에서 악명이 높다. 주어가 생략되거나 명시적으로 표시되지 않음으로 인해 한국어 학습자들(이주노동자, 청각장애인, 학습장애인 등)이 아주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한국어 화자들 사이에도 종종 오해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얼마 전 모 청와대 수석이 국회의원에게 보낸 문자도 주어 생략 문제로 큰 오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37) (제가? 당신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인지 몰랐다

이에 비해 영어나 한국수화는 주어가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표현된다. 영어는 심지어 가주어를 내세워 문장을 만들기까지 한다.

물론 한국수화(KSL)도 주어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원성옥 등, 2013).

① 수화자(Signer)가 주어인 경우

대화 중에 수화자와 상대방 간에 오해의 소지가 없어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경우도 주어 변경이 있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 명시적으로 표현된다.

② 앞부분에 주어가 명시되고 주어(주체) 변경이 없는 경우

역시 오해의 소지가 없는 경우, 앞부분에 제시된 주어가 지속되고 있는 경우, 주어 없이 표현될 수 있다. 하지만 문장이 길어지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 주어 변경이 없는 경우도 다시 한 번 주어를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 수화는 수지 한국어(Signed Korean)나 한국어와 달리 아주 친절한 언어다. 누가 주어인지, 이 동사의 주어가 누구인지 아주 분명하게 표시한다. 주어-동사 간 호응 파악이 용이한 언어다.

한국 수화에서 주어 표시 방법으로 사용하는 문법 장치들은 다음과 같다(원성옥, 2013; 원성옥 등 2013; 남기현 등, 2011).

a. t expression:눈썹이 올라가고 눈이 커지며 눈에 힘을 준다.

b. 눈의 응시(Eye-Gazing): 동사 수화를 하면서 이미 설정된 공간 등 어디를 보며 수화를 하느냐에 따라 주어가 달라진다.
c. 몸의 방향(Body Shift): 이미 설정된 공간(보통 좌 우, 좌 중 우) 중 어디로 몸을 향하며 수화를 하느냐에 따라 주어가 달라진다.
d. 가리키기(Indexing): 손으로 통사적 의미를 갖는 특정 공간을 가리킨다.
e. 구성된 행위(Constructed Action): 해당 동사 표현을 주어답게, 그 사람답게 수화를 함으로써 주어가 누구인지 표시한다.
f. 역할 변경(Role Shift): 구성된 행위(Constructed Action)와 결합해서 같이 나타나기도 하고, 몸의 방향을 바꾸면서 나타나기도 한다. 수화자가 아버지가 됐다가 딸이 됐다가 하면서 주어를 달리해서 표현한다.

한국어에서 생략된 주어를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한국수화 문장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37) 한국어 문장: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38) 수지 한국어:
[나 낳다 기르다 부모 감사하다]

(39) 한국 수화

t	시선→a	t	몸방향→a
나 부모a	나 낳다 기르다	나	감사하다

(38)번과 같이 한국어 문장 (37)를 한국어 단어마다 수화를 하게 되면 한국 수화 사용자들에겐 한국어 원뜻이 아니라 '나는 아이를 낳고 기른다. 부모님이 감사한다.'라는 뜻으로 보이는 이유도 한국어의 주어 생략과 달리 한국수화의 경우, 제한된 경우만 생략가능하기 때문이고, 대부분의 경우, 생략하지 않고 명시적으로 주어를 표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38)번과 같이 주어가 생략된 한국어 문장을 그대로 한국어 단어마다 수화 단어로 바꾸어 번역하는 경우, 주어를 이해할 수 없거나 주어가 바뀌어 이해될 가능성이 높다.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와 한국수화의 언어학적 차이에 따라 수화통역사가 한국어-한국수화 간 통역을 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을 도출하고, 수화통역 과정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손으로 대화를 하고, 통역한다고 하여, 모두 수화(Sign Language)인 것은 아니며, 더욱이 한국수화(KSL)로 통역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표현한 수화통역 결과물이 한국어(수지 한국어, Signed Korean)인지, 한국수화(Korean Sign Language)인지 알고 통역하여야 한다. 또한 수지 한국어로의 통역을 원하는 농인에게는 음역(Transliteration)을 하고, 한국 수화로의 통역을 원하는 농인에게는 통역(Interpretation)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수화통역사는 길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농인에게도 어떤 언어로 통역 받을지에 대한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통역사 양성 과정이나 과목, 자격시험이 수지 한국어(SK)와 한국수화(KSL)를 구분하여 교육하고 자격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SOV가 기본 어순인 한국어를, 어순이라는 문법장치를 사용하지 않고도(free order) 문장 완성이 가능한 한국수화로 통역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어순에 따라 수화 단어를 나열하기보다는 조사나 어미, 어순을 통해 한국어 문장에 표현된 문법 정보(주어, 목적어, 주어-동사 호응 등)를 한국수화 문법에 따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간의 통사론적 사용, 가리키기(Indexing), t expression과 같은 NMS, 몸의 방향, 눈의 응시, 역할 변경, 구성된 행위 등이 한국수화에서 수행하는 문법적 역할을 이해하고 한국수화 문장 완성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수화에서는 수화 단어를 한국수화답게 사용하여야지, 한국어 단어처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셋째, 한국어에서는 동사 등의 서술어가 맨 뒤에 표현되고, 주어와 동사간의 물리적 거리가 멀다. SVO가 기본 어순인 영어에서 주어와 동사 정보가 먼저 제시되고 다른 논항들과 정보들이 추가되는 경우와 대비된다. 더욱이 주어나 동사가 2개 이상인 복문, 특히 안긴문장에서 주절의 주어와 동사는 처음과 끝에 위치한다. 이로 인해 한국의 수화통역사들은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한국어 문장의 동사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문장을 끝까지 청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국어 문장의 동사에 해당하는 수화 동사의 종류와 특성을 반영하여 수화통역하기 위해서도 한 문장을 끝까지 청취할 수밖에 없다. 한 문장을 끝까지 듣고, 수화 문장으로 바꾸면서 동시에 한국어 다음 문장을 청취해야 한다. 수화 문장을 산출할 때도 한국어 단어와 수화 단어의 기계적 대응이 아니라 수화 동사 종류에 따라 공간 설정과 공간 활용을 달리 하여야 한다. 또한 눈 응시, 가리키기, 몸

의 방향, 역할 변경 등을 통해 한국어 문장에서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주어와 동사를 물리적으로 가깝게 혹은 명시적으로 주어-동사 호응 관계를 표현하여야 한다. 단어나 구 수준을 넘어 2 문장 이상을 동시에 기억하여야 하고, 한국수화 문법에 맞게 먼저 공간 설정하고 통사론적으로 적절하게 공간을 활용하여 한다. 즉, 일치동사는 시작점과 끝점 혹은 손의 방향을 통해 주어와 목적어를 표시하고, 공간동사는 수화하는 위치로 행위 장소를 표시하고, 단순동사는 특정 공간을 눈으로 응시하거나 몸의 방향을 바꾸어 해당 동사의 주어나 목적어를 표현하여야 한다. 이는 엄청난 인지적 부담을 발생시키는 통역 과정들이다. 수화통역사의 기억능력 향상과 통역과정 자동화 등을 위한 수화통역사 본인의 부단한 노력도 필요하겠으나, 동시통역 중심의 통역관행 개선, 수화통역사의 화자 발언 중지권 보장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한국어나 수지 한국어와 달리, 한국수화는 공간에서 수화를 하고, 공간을 활용하는 시각언어다. 따라서 특정 공간을 가리키기 전에 해당 공간이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키는지 먼저 명시적으로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설정된 이후에는 통사론적으로 일관되게 활용되어야 한다.

다섯째, 한국어에서 주어와 동사가 2개 이상인 복문, 특히 안긴문장의 경우 주어-동사 간의 물리적 거리를 가깝게 하고, 공간 설정 및 가리키기, 눈의 응시 등의 NMS를 통해 주어-동사 호응 관계를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한국어 문장을 한 두 단어나 구만을 듣고 통역하거나 한국어 어순이나 문장 구조를 그대로 따르는 경우, 한국수화 문장으로 통역하기는 불가능하며, 주어를 이해할 수 없거나 해당 동사의 주어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주어가 바뀔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한국어를 한국수화로 통역하는 일은 많은 요인들을 고려하여야 하는, 힘들고 전문적인 능력이 필요한 일이다. 앞으로 한국어와 한국수화에 차이에 따른 통역과정에서의 고려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통역 실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도움이 되는 통역 전략과 통역 오류들을 정리하고 개선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경진, 허일(2003). 대학에서의 수화통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재활복지 연구, 1*, 159-186.
2. 김칠관, 윤병천(2011). *응용언어학개론*. 양서원.
3. 남기현, 원성옥, 허일(2010). 한국수화의 동사 유형과 수 표현의 특성. *특수교육연구, 17*(1), 157-178.
4. 남기현, 원성옥, 허일(2011). 한국수화 래러키브 속에 나타난 구성된 행위 분석. *언어연구, 26*(4), 767-789.
5. 원성옥(2013). *수화*. 커뮤니케이션북스.
6. 원성옥, 허일, 김만영, 김유미, 남기현, 배재만, 변강석(2013). *수화통역의 기초*. 교우사.
7. Bouchard, D, and Dubuisson C.(1995). Grammar, Order, and Position of Wh-Signs in Quebec Sign Language. *Sign Language Studies 87*, 99-139.
8. Cokely, Dennis (1992). *Interpretation: A sociolinguistic model*. Burtonsville, Maryland: Linstok.
9. Colonomos, B. (1992). *Processes in interpreting and trasliterating: Making them work for you*(video ed.). Available from Front range Community College, 3645 West 112th Avenue, Westminister, CO80030.
10. DeGroot, A. M. B. (1997). The cognitive study of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Three approaches. In J. W. Danks, G. M. Shreve, S. B. Fountain, & M. K. McBeath(Eds), *Cognitive processes in translatin and interpreting*(pp.25-26). Thousand Oaks, CA: Sage.
11. Fischer, S. and Gough, B.(1978). Verbs in ASL. *Sign Language Studies, 18*, 17-48.
12. Friedman, L. A.(1976). The Manifestation of Subject, Object, and Topic in American Sign Language. In *Subject and Topic*, ed. C. Li, 125-48. New York: Academic Press.
13. Frishberg, N. (1990). *Interpreting: An introduction*(revised ed.). Silver Spring, MD: Registry of Interpreters for the Deaf.
14. Humphrey, J. H., & Alcorn, B. J. (1994). *So you want to be an interpreter? An introduction to sign language interpreting*. Amarillo, Texas: H & H Publishing.
15. McIntire, M. L., & Sanderson, G. (1995). *Bye-bye! Bi-bi!: Questions of empowerment and role*. proceedings of the Thirteenth National Convention of the Registry of Interpreters for the Deaf, pp.94-118. Silver Spring, MD: RID.

16. Napier, J. (2002). University interpreting: Linguistic issues for consideration. *Journal of Deaf Studies and Deaf Education, 7*(4), 281-301.
17. Neidle, C.,J. Kegl, D MacLaughlin, B. Bahan, and R. Lee.(2000). *The Syntax of American Sign Language*. Cambridge, Mass.: MIT Press.
18. Quinsland, L. K., & Long, G. (1989). *teaching, interpreting and learning: Implications for mainstream hearing-impaired students*. Paper presented at the 1989 convention of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San Francisco, March.
19. Seal, B. C. (1998). *Best practices in educational interpreting*. Boston: Ally and Bacon.
20. Seleskovitch, D. (1992). Fundamentals of the interpretive theory of translation. In Plant-Moeller(Ed.), *Expanding horizons*. Silver Spring, MD: Registry of Interpreters for the Deaf.
21. Stewart, D. A., Schein, J. D., & Cartwright, B. E. (1998). *Sign language interpreting: Exploring its art and science*. Needhan Heights, MA: Allyn & Bacon.
22. Tervoort, B.(1968). You Me Downtown Movie Fun? *Lingua, 21,* 455-65.
23. Winston, E. A. (1995). An interpreted education: Inclusion or exclusion? In R. C. Johnson & O. P. Cohen(Eds.), *Implications and complications for deaf students of the full inclusion movement*(pp. 55-62). Washington, DC: Gallaudet University.
24.http://www.deafkorea.com/ver/_deaf/test2.html#map5, 검색일: 2013/09/08.